

발행인 손영주 발행일 2015년 12월 1일(화)
 편집위원 이부민, 문인구, 김영경, 김현민, 박해란
 ☎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Tel 02) 3141-3011 Fax 02) 3141-3022
 E-mail equaline@hanmail.net
 Homepage www.equaline.or.kr

여우노리

女 友 女 友 女 友

시즌 2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 867-4456
 www.kurowoman.com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 | Tel. 867-0516
 www.gurolife.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Tel. 332-7171
 www.workingmom.or.kr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 Tel. 802-0922
 http://nambu.seoulwomen.or.kr

구립튼튼이어린이집 | Tel. 809-9868
 http://iseoul.seoul.go.kr



4.11 중견리더십 아카데미



4.20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쟁취 선포식



5.28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연합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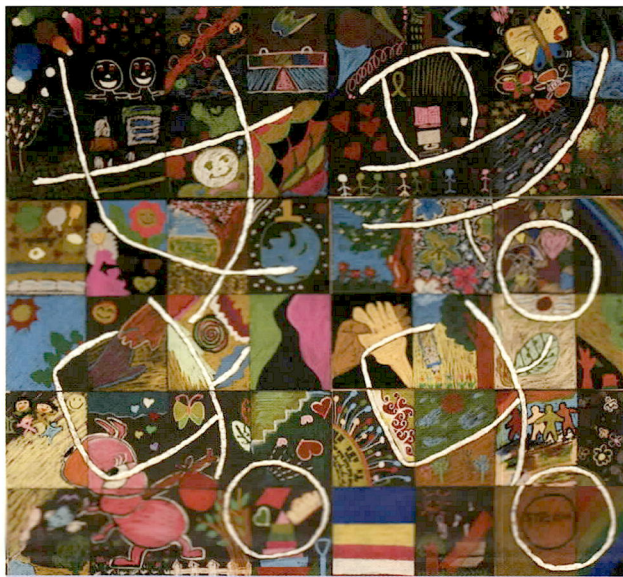
7.2 '가사노동자 계약서를 씹시다'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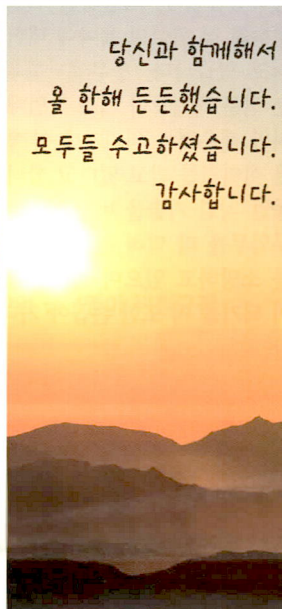
6.5 법인·부설 실무자 공동수련회



10.23 직장 내 성희롱 지원제도 방안 모색 토론회



6.5 공동수련회 협동화 작품



9.3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수련회



11.21 여우산책 ~ 몽촌토성에서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 [2015 여자! 새로운 꿈을 꾸다] 취업박람회 개최



남부여성발전센터는 9월에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10월에 시흥4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역의 구직 여성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를 위하여 '2015년 마을로 찾아가는 여성취업박람회'를 총 2회 개최하였다.

200명의 지역 여성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현장면접이 진행된 '채용관'과 취업코칭이 이루어진 '도우관', 취업을 위한 건강상담 및 취·창업체험을 해 볼 수 있는 '나눔관'으로 구성되었다. 2015여성취업박람회는 구직자 거주지 인근의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여 취업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 내 구직여성을 발굴하고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부터 '마을로 찾아가는 여성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취업 일자리센터로 호평받고 있다.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

■ 2015 활동가·주민대표 공동연수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에서 11월 12일~14일 제주도로 '활동가·주민대표 공동연수'를 다녀왔다. 상근활동가와 자활근로·자활기업 주민대표 총 22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자활사업 운영노하우를 듣고 자활기업 사업장을 둘러보며 경영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지역을 탐방하면서 활동가와 주민대표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집단 위크숍을 통해 센터 비전을 공유하였다.

■ 자활기업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인가



구로살터 돌봄 자활기업인 돌봄공동체해드림과 (주)나눔돌봄센터가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오랜 시간 준비 해온 결과 해드림은 6월, 나눔은 9월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현재 조직명칭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착한여성 캐매니저 현장수업 공개

착한여성 캐매니저 수업이 오금고 아래 안양천 둔치에서 실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보다 실무에 가까운 현장수업을 진행했다. 착한여성 캐매니저는 여성운전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량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와 정비사 사이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매니저를 뜻한다. 기존에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무했던 여성들이 위 수업을 통해 실제적인 자동차의 내부시스템에 대해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해 캐매니저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걸음을 떼고 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분야라서 훈련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였으나 강사님들과 훈련생간의 뛰어난 팀워크로 현재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 여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센터와 함께 서울시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 진행한 특화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정비소에서 안전검사원이나 다산콜센터 특화 서비스 콜상담, 프로슈머 협동조합 등 앞으로 다방면으로 취업 및 창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 법안 개정 추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함께 사업주 허락 없이도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로 직장맘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맘 편히 쓸 수 있는 직장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016년~2018년 센터 재위탁 확정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성노동자회의 재위탁을 확정 받아 앞으로도 서울시 직장맘을 위해 함께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1곳에서 운영중인 센터를 2019년 까지 4개로 확대·운영하기로 하였다.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문의전화 : 02-332-7171

취업지원 A에서 Z까지, 나만의 에피소드



이소영 / 취업설계사

쌍둥이 베트남 엄마, “선생님이 취업시켜주세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받은 응우엔티화씨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여성으로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된 쌍둥이 엄마입니다. 여전히 의사소통은 서투르지만 봉제기술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봉제기술을 배운 교육생이지만 성실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여 봉제회사에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민여성인턴제로 참여하여 인턴으로 채용하겠다는 업체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너무 신이 났지만 곧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진짜 보이스포싱 조직책 아니에요!

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은행거래내역이 전무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업으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줄 시간이 없어 제가 대신 은행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가족도 아닌 제가 베트남 여성을 데리고 통장을 만들고 있으니 주변에서 ‘저 한국여자 뭐지? 순진한 베트남 여자를 은행에 데리고 와서... 대포통장이라도 만드느라 아니야?’ 이런 식의 뜨거운 시선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두 번의 만남 끝에 겨우 자기 이름으로 된 최초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통장을 건네며 은행원이 저한테 웃으면서 “보이스포싱 관련 된 거 아닐까 잠시 의심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멧쩍게 그 은행원에게 제 명함을 건네며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베트남 엄마는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사장님도 열심히 잘 한다며 육아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응우엔티화씨는 아직까지는 전문 작업보다 기초 작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높아 업체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실무무를 더 익혀 전문적인 일에 투입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인턴 수료 후 정직원이 되기를 저 또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 취업설계사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봉제인력양성과정’을 담당한 취업설계사로 특소는 콜라처럼 취업자의 맘을 시원하게 해주는 취업설계사입니다.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토크쇼 참석 후기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업, 협동조합

심각한 청년실업률로 국가차원의 기금펀드가 조성되는 이 시점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는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다. 한국사회 여성 일자리의 특성상 경력단절 시기를 겪은 여성이 취업했다 하더라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부업형태의 보조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근속기간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한 취업 형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0월 20일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토크쇼 [세상을 바꾸는 일자리, 협동조합에서 일하기]를 개최해 한국사회의 여성실업과 일자리 특징 및 해결과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협동조합 대표들의 설립 추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하였다.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토크쇼 진행 모습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문가와 조합 대표들의 실질적이고 진심어린 답변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복잡한 서류상의 문제 극복 방법, 운영진과 조합원과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한 경계,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개념 차이 등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자리에 함께한 35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토크쇼가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UN은 상위 1%를 위한 기업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기업, 돈이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기업이 앞으로 국가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삼았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틀에 박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공공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으로 눈을 돌려 협동조합이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혜숙 / 직업상담사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센터의 크고 작은 일들을 블로그와 인쇄물 발행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홍보 담당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정리수납전문가가 되다.



김소빈 / 가정관리사

안녕하세요. 저는 홈닥터에서 가정관리사로 일하는 김소빈입니다. 이번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들었습니다.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통해 신발장부터 주방, 침실, 욕실 등 집안 곳곳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주에 한과정씩 배우며 직접 집에서 실습해보고 과제로 정리 후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집안을 짚는 것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그때그때 집에서 실습을 하니 집안 정리도 되고 배운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리가 안돼서 지저분했는데 정리를 하고나니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고객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정리수납을 하니 고객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니 한결 집안이 깨끗해져서 좋아하십니다. 의류 개는 것부터 양말 개는 것까지 개는 모양이 달라지니 공간도 넓어지고 다른 물건을 더 채울 수 있어 좋아하십니다. 냉장고 청소하면서 정리하

며 라벨 붙여 정리하니 반찬통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납바구니에도 라벨을 붙여 놓으니 무엇이 있는지 바로 확인되고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꺼내 반찬을 만들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생활하기 편해졌습니다. 정리수납을 통해 저와 고객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집안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수업을 듣지 못한 동료들에게도 꼭 들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제 생활과 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정리수납을 배워 생활에 도움이 되니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항상 깨끗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리수납교육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다음에는 1급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배울 계획입니다.



정리수납전문가 2급과정 수료식

김소빈 / 가정관리사

김소빈님은 구로샐터 자활기업 홈닥터에서 근무 중인 가정관리사이며,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협력하여 개설한 정리수납전문가 2급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 일자리 대장정

“직장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간담회

2015년 10월 한달간 박원순 시장님은 99개의 일자리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시장님은 기간 중 12일 월요일 저녁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본 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님을 모시고 “직장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9명의 직장맘이 함께 참석하여 직장맘들의 현실과 고충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간담회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의 분위기가 아닌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대화를 나누는 편안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직장맘들은 15년을 몸담은 회사에서 출산후가를 요청했다가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서부터 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아예 책상이 없어진 경우까지 자신이 겪은 직장 내 차별을 이야기하며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직장맘의 가슴 아픈 사연에 시장님을 비롯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같이 공감하며 숙연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서울시 8개구의 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커뮤니티 마다 교육, 놀이, 힐링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은선 (직장부모커뮤니티)

직장맘의 이야기가 끝난 후 시장님은 ‘오늘 직장맘 여러분의 이야기를 수렴하여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직장맘들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번 간담회에서 직장맘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 꿀 수 있었던 건 비단 저 뿐이었을까요? 직장맘들이 흘린 눈물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조그만 울림을 주었고 이 울림이 다시 작은 파장이 되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래서 직장맘들의 행복한 미래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래 봅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한 직장맘들

평등의전화 20년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현주소

창립 때부터 일상적으로 여성노동 상담을 진행해온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화로 여성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갈수록 심해지던 1995년 상담을 '평등의전화'로 특화하였다.

2000년부터는 여성노동 전문 사이트 이퀄라인(equaline.or.kr)을 개설하여 전화, 면접 상담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상담으로까지 확장하였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서 상담의 공신력을 높여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권리찾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해마다 수차례 걸쳐 진행하면서 이동상담실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일하는 여성들과 보다 폭넓게 만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 지난 20년간 총 11,460건(재상담 제외)의 여성노동 상담을 진행하면서, 평등의전화는 일하는 여성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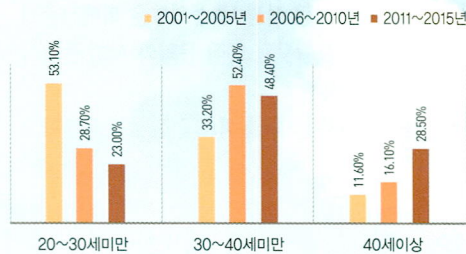
〈년도별 상담 건수〉



평등의전화 DB가 구축되었던 200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노동 문제로 평등의전화를 찾은 여성노동자 총 10,066명(항목별 무응답 제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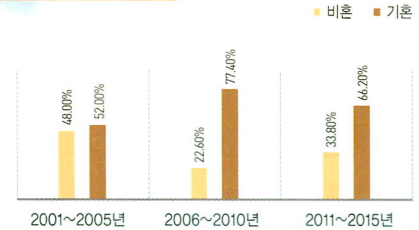
■ 30세 이상, 특히 40세 이상 증가폭 두드러져

〈연령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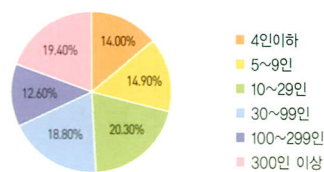
■ 기혼의 꾸준한 증가, 특히 2006~2010년 내담자의 77.4%가 기혼으로 나타나

〈기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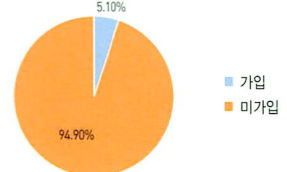
■ 3명 중 1명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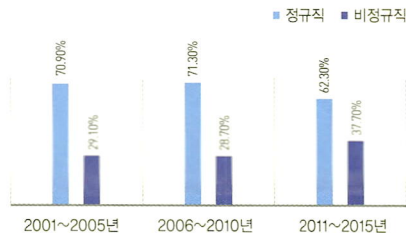
■ 미조직 여성노동자가 94.9%에 달해

〈노조 가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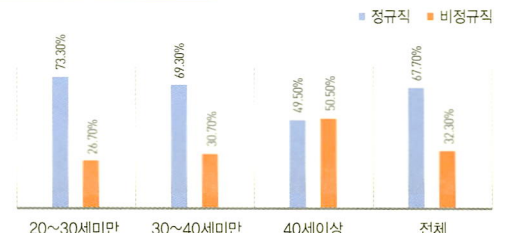


■ 비정규직 꾸준히 늘어, 특히 40세 이상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고용유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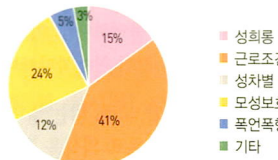


〈연령-고용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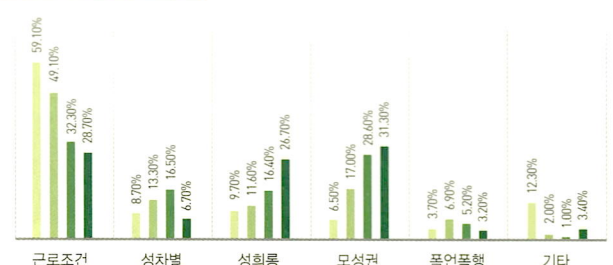
■ 상담 1순위 근로조건, 2순위 모성보호, 3순위 직장내 성희롱 순으로 나타나

〈상담유형 분포〉



■ 근로조건 상담은 감소 한 반면, 직장내 성희롱, 모성권 상담 급증

〈상담유형 추이〉



평등의전화는 월2회 무료 변호사 상담을 포함한 일상적 여성노동 법률 상담에서 더 나아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개인심리상담, 집단치유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한편 상담을 통해 포착된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등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평등의전화는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성희롱이 근절되고, 모성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여성노동 현실 구현을 위해 여성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여우와 함께 하며

이 폭지는 서울여노의 자문위원 및 이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여노와 함께 하며 느끼는 단상을 나누는 란입니다.

여노가 주는 즐거운 불편운동



강남식 이사

월초가 되면 스마트폰에 서울여노회가 보낸 '즐거운 불편운동' 문자가 옵니다. 지금까지 '일회용 젓가락·컵 안 쓰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손수건 사용하기',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 '물 아껴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에는 '작게, 아래에서, 꾸준히, 우리 힘으로' 소박하게 지구를 살리자는 여노회의 뜻에 동참하도록 강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문자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은 25조원(2012)에 달한답니다. 연간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어도 39만 가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승용차 47만대가 뽑어 내는 온실가스 만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환경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 문자를 받은 날 만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즐거운 불편운동' 문자가 오면 먼저 관련 분야 제 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이면 더 잘 해야지 생각하고, 미흡했던 일은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노력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부족한 것은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 인데 대안을 모색중에 있지요. 여노

회 덕에 제가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고맙습니다. 덧붙여 저는 몇 개월전부터 물건을 사러가거나 목욕탕에 다녀오는 등 소소한 일상을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일상을 친환경적으로 하게 할 뿐아니라 여성건강에도 매우 좋답니다. 여성 대표 질환인 유방암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고, 근육의 탄력과 유연성 유지,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라 합니다. 여노회 가족 여러분! '즐거운 불편운동'과 함께 일상을 자전거로 하시는 것!!! 어때세요?

※ 강남식 이사님은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이며 성 인지 정책·여성폭력을 전문분야로 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너를 공감해」

“넌 혼자가 아니야”

“심장이 두근거리고 먹지도 못하고 평정심을 찾을 수 없어요.” “충격으로 밤새 구토를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지, 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걸려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잘못된 조직 문화와 사회 문화가 만들어 낸 엄연한 성차별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통도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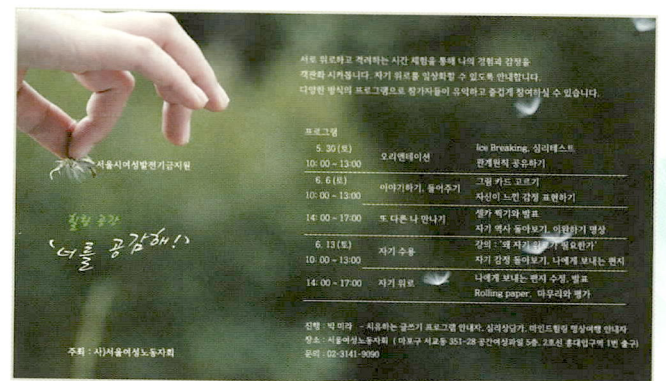
그래서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고 자 설문조사, 개인심리상담, 집단치유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1. 설문을 통해 본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실태

설문은 성희롱 당시 느꼈던 증상, 사건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 대처 방식, 심리정서지원 필요성 등 총 6개 문항이었으며 235명에게 설문하여 100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 당시 느꼈던 증상에 대해서는 분노(90%), 수치심(90%), 근로의욕저하(73%), 수면장애(64%)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이 직장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건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질문했을 때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가 82%,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가 80%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발생지점과 무관하게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과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사회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요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개인상담을 통해 살펴본 심리정서실태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는 심리상담가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유의 기회를 만들었다. 심리상담의 결과 상담과정에서 응어리진 감정 등을 분출하고 지지·지원 받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면서 내담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직장



「너를 공감해」 프로그램 포스터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심리정서지원제도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3. 집단 치유프로그램 ‘너를 공감해’

집단치유프로그램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함께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로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자책감과 낮은 자존감의 뿌리를 인식해, 수용과 자기 위로를 통해 긍정적이고 멀리 보도록 돕고자 했다. 프로그램 참가 후 피해자들은 “서로 상처 공유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치유할 수 있었으며,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솔직할 수 있어서 편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립되어 왔는데 혼자라고 말해 줘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정서지원제도를 위한 정책 제안

1) 현재 전무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구축, 3) 사업주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 회복을 위한 심리휴가 의무적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구립튼튼이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기



작년 9월 개소식때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허주리, 정보영, 서진선, 박보경, 전유미, 이미경, 윤진숙 원장, 강정진, 전귀옥

“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임을 증명합니다.”

이 한 문장의 서류를 받기위하여 튼튼이 교사들은 올 5월말부터 2달간 혼연일체가 되어 매일 밤 늦도록 학습과 연구와 교구제작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평가인증 사상 99.19 라는 아주 좋은 점수로 인증서를 받았다!

어렵고 힘들다고 소문난 그 과정을 함께 한 교사들이 직접 쓴 소감문을 보내왔다. 그 중 일부를 여기에 실는다.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평가인증서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운영의 6개의 영역에 대해 국가 요구하는 수준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데 철저한 준비와 협동 없이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 전귀옥

평가인증 지표 책을 학습하면서 주변에 물어보아도 이렇게 퇴근 후 몇 시간씩이고 남아 모든 교사가 함께 학습했다는 예는 들어 보지 못했으니 지표 책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이 학습하다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 전유미

모든 일에 있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숲 속에 들어선 사람은 나쁜만이 아니며, 타인의 시선/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만의 목표 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서진선

평가인증을 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모두들 심리적 부담에 지친기색을 많이 보였으나 그때 마다 원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내자’는 응원을 해주셨다. 평가인증 날, 관찰자가 교실에 왔을 때 조금 긴장을 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영아들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 허주리

조리사 일도 처음인데 평가인증이라니... 청결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계획된 식단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배식되고 있는지 확인받고 있었다. 평가인증이 끝난 후에도 어린이집은 상시 평가인증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인증의 효과가 아닌가 싶다. - 박보경

여러 가지 당면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평가인증 준비까지 같이 하며 즐겁게 때론 피곤에 지쳐 힘들게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원장님 이하 모든 교사가 서로 보듬고, 끌어주며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평가인증을 마쳤다. - 강정진

평가인증이 끝나고 나니 비로소 앞에서 깨어 나온 한 마리 새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 또 다른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 해도 지금의 마음가짐과 노력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성숙된 자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 이미경

평가인증을 마치고 나니 힘들었지만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교사로서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나 자신에게도 큰 산을 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해 주었다. - 정보영

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역량강화였다. 교직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한 단계 성숙된 모습들 속에 자존감이 들어있어서 더 아름다웠다. 묵묵히 따라와 주었던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윤진숙 원장

후원명단

강남식 강보은 강윤신 강은숙 강정진 계경숙 고금숙 고종현 공유식 광주연 구본권 권은경 권은숙 김경란 김광희 김기영 김 린 김명희 김미례 김미리 김민선 김수경 김수연 김숙자 김신연 김연주 김연중 김영경 김영선 김영옥 김영철 김용신 김원옥 김유미 김은영 김장숙 김재진 김정임 김지미 김지수 김지영 김 진 김진희 김혜영 김향자 김현민 김현숙 김현순 김혜경 김혜진 김효동 김효선 나유리 남윤순 노애라 노현주 노희정 류영미 문은미 문인구 민현정 박가현 박경숙 박경옥 박경자 박근성 박미선 박보경 박수현 박옥연 박운선 박은국 박정연 박정화 박지애 박지연 박지연 박진영 박혜란 박혜정 방승희 배미희 배옥병 봉만수 서정연 서진선 서혜경 성원화 손미희 손영주 손은하 송기진 송희숙 신문용 신민정 신상아 신현숙 심상연 안강숙 안광옥 안정연 안정현 여연심 오성화 오세정 오정민 왕인순 원동순 원혜영 유상옥 유선우 유시주 유옥순 유금옥 윤선웅 윤선주 윤영신 윤정숙 윤진숙 윤택기 윤혜숙 윤혜연 이경영 이광복 이국희 이근호 이명선 이미경 이미영 이민숙 이부민 이상욱 이성민 이소영 이소영 이 솔 이유정 이윤경 이은영 이은희 이재숙 이정숙 이정혜 이재운 이주연 이주는 이주환 이주희 이진심 이한본 이혜숙 이호선 임내옥 장성희 전귀옥 전유미 정경숙 정경원 정보영 정 선 정지선 정홍금 조미수 조버들 조상희 조수진 조운서 조지훈 조혜원 최경희 최성호 최승만 최옥금 최원호 최현주 한영희 한미순 한민영 한순복 한영규 한일환 한조혜 허목화 허세영 허장휘 허주리 허지영 홍성대 홍주희 홍진숙 홍현희 황금희 황지영 황진숙 선택미록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우소리 15호를 내보내며

- 처음 참여하는 여우소리 편집회의 즐거웠습니다. _김영경
- 후기가 제일 어려워... _김현민
- 시간이 빨리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_박혜란
- 여우소리 하반기 편집회의를 즐겁게 마치니 올해가 벌써 마무리 되는 것 같다. _문인구
- 내 삶도 조금씩이 아닌 우주에서 보는 지혜를 터득할 일! _이부민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계좌 안내
우리는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서울여성노동자회